

한적한 곳에서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통일 483)

E. E. Hewie(1851-192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부르심과 영접

O STEAL AWAY: 9.8.8.8. REF.
W. J. Kirkpatrick(1838-1921)

보통으로



1. 너 예수께조용히 나 가 네 모든 짐 내려놓 고
2. 주 예수 의 은혜를 입 어 네 슬픔이 없 어 지 리
3. 주 예수 를 친 구 로 삼 아 늘 네 옆 에 모 시 어 라
4. 너 주 님 과 사 귀 어 살 면 새 생 명 이 넘 치 리 라



주 십자가 사 랑 을 믿 어 죄 사 함 을 너 받 으 라
 네 이 웃 을 늘 사 랑 하 여 너 받 은 것 거 저 주 라
 그 영 원 한 생 명 샘 물 에 네 마 른 목 축 이 어 라
 주 예 수 를 찾 는 이 앞 에 참 밝 은 빛 비 추 어 라



후렴



주 예수께조용히 나 가 네 마음을 쏟아 노 라



늘 은 밀히 보 시 는 주 님 큰 은혜를 베푸시 리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Bb7→G7 Ab→F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36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 40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 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 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 43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 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03 묵상하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

주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진행되었다.

본문: 마가복음 1:35-45

핵심질문: 예수님의 사역의 진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1. 도입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자 마자 예수님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비뺐다. 그만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다. 어둡고 캄캄한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반응인가? 사역의 효과인가?

2. 본문

명성보다 사명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한적한 광야로 나가신다.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주께 묻는다. 사람들의 필요만 생각하면 머물러야 옳지만, 자신을 부르는 살마들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다.

편견보다 생명을

혐오와 격리의 대상이던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져 깨끗하게 하신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공식을 깨뜨리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거룩해 진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세우신다.

물러섬과 감춤으로

나병환자의 치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 퍼진다.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은 물러남과 감춤이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 잠깐의 퇴수마저도 밀려오는 무리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였지만, 자신을 광야에 봉쇄하고 윤페 시켰다.

3. 결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다. 사역의 필요도 아니었다. 한적한 곳에 있는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고칠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그것이 그가 사는 길이었다.

기도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을 만날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게 하소서.